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국제통상학과	이름	김XX
파견국가	프랑스	파견도시	낭트 nantes
파견대학	Audencia Business School	파견기간	2022-2학기
귀국여부	귀국함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오덴시아 경영대학은 프랑스 서부 nantes 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처럼 캠퍼스가 큰 학교가 아니고 경영대학 건물 하나만 있습니다. 학교 내 카페테리아에서 커피, 샌드위치, 샐러드 등을 그리 비싸지 않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교내 체육관이 있고, 도서관, 컬러룸 등 공부할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Business Simulation - 오덴시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엑셀 프로그램을 돌려서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교수님의 개입이 적고, 팀원들끼리 강의시간마다 결정을 내려 결과를 도출해내는 수업이고,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게 들은 수업입니다.	
2022-2학기 수업	Digital Marketing & Social Networks - 과목명에서 알 수 있듯, 디지털 마케팅과 기업의 SNS 플랫폼 분석을 통해 마케팅을 분석하고 조언을 하는 수업입니다. 팀플을 통해 기업을 설정하여 분석 후 조언을 제시하는 수업입니다.	
	European Business Environment& Culture- case study, big presentation, 시험까지 있어 할 게 꽤 많은과목이었습니다. 다른 수업보다 동양인 학생의 비중이 가장 적고, 유럽문화와 기업 환경에 초점을 둔 과목이라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있었습니다.	

	Strategic Management - 팀플, mcq3번, 시험이 있어 이 과목 역시 할 게 많은 과목이었습니다. 비즈니스 이론, 모듈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French - 15~20명으로 진행되며, 전공수업보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이 있는 수업입니다. 익숙지 않은 프랑스어 수업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재밌게 들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오덴시아 ic team은 국제 학생들을 위한 몽셸미셸 여행, 할로윈 파티, 옥토버페스트, 영화 관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안내합니다. 또 오덴시아 본교 학생들과 버디가 되어 학교 생활 전반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8월 말에 낭트에 도착했는데 더위를 많이 타지 않아서 아주 더운 날씨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와 트램, 학교 등에 온냉방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더위와 추위가 더 잘 느껴질 수 있습니다. 9월부터 아침 기온이 한 자리로 떨어지는데, 우리나라처럼 히팅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추울 수도 있습니다. 11월부터는 비가 자주 내리고, 한국과는 다른 추위로 느껴지기 때문에 전기장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전	낭트는 파리같은 관광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소매치기에 유의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몇 년 전까지 프랑스에서 안전한 도시로 꼽혔다고 하는데, 제가 낭트에 머물 때는 이른 새벽, 늦은 밤에 범죄가 일어났다는 뉴스를 종종 접했습니다. 또, 친구의 class mate 가 밤에 흑인 무리에게 핸드폰을 뺏겼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늦은 밤에 돌아다니는 일은 피하고, 여러 명이서 움직이는 걸 추천합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o) 기타() 프랑스 국립 기숙사인 CROUS에서 지냈습니다. (Cité Universitaire La Bourgeonnière) 기숙사라고는 하는데, 방 안에 화장실과 샤워실, 부엌이 전부 다 있습니다. 3분 거리에 대형마트가 있어 생활하기에 편리했습니다. 또, 학교까지 트램으로 4분,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기때문에 통학하는 데도 편리했습니다. 퇴사할 때 방 청소 및 검사를 받습니다. 구석구석 다 확인하기 때문에 평소에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는 게 나갈 때 편할 것 같습니다.
식사	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o) 홈스테이 () 외부식당 () 직접 요리 (o)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기숙사에 부엌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해먹었습니다. 시내에 아시안마트가 두 개정도 있어 만두, 라면, 양념장 등을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까르푸, 모노프리 같은 큰 마트에 봉지 채 끓여먹는 쌀도 있기 때문에 밥도 어렵지 않게 해먹을 수 있습니다. 오덴시아 근처에 낭트대학교 식당이 있는데, 여기서도 3~4유로에 파스타, 샐러드 등을 사먹을 수 있습니다.

	하그까지 트래 3층서요 다그 드 저기자이기 때문에 피스하 때마다 +				
	학교까지 트램 2호선을 타고 두 정거장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tan				
┃ │ │ │ │ │ │ │ │ │ │ │ │ │ │ │ │ │ │ │					
	┃때문에 티켓을 꼭 준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 우리나라 KTX 같은 TGV(떼제베) 를 통해 주요 도시로 이동				
교통	가능합니다. TGV MAX로 약 80유로를 지불하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최소 3개월 구독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파리에 갈 때는 떼제베를 이용했고, (낭트역 -> 몽파르나스역) 다른				
	-11112 = -111112 = -1111112 = -11111112 = -1111111111				
	나라로 여행 다닐 땐 유럽 저가항공사를 이용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왕복 약 210만원	
Fees		
보험료	한화손해보험 플라잉 닥터스 약 32만원, ADH 집보험 약 3만원	
숙소	월 346유로, 보증금 350유로	
식비	약 50만원	
교통비	약 20유로(트램), 200유로(떼제베)	
책값	·	
기타1	핸드폰 요금 약 15유로	
기타2	여행 및 생활용품 구매 약 350만원	
합계	약 1000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2학기 파견학생 기준, 5월쯤 오덴시아로부터 오는 입학허가증을 미리 확인하고 비자를 서둘러 발급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겪은 시기가 특수적인 상황이었을 수도 있으나, 비자 인터뷰 예약을 잡지 못 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저 또한 힘들게 잡아 겨우비자를 발급 받았고, 제때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다르게행정처리가 여유롭고 느립니다. 모든 일처리가 유동적이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CAF 라고 불리는 일종의 주택보조금같은 제도가 있는데, 이것 역시 돈을 받기 위해선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걸립니다. 오랜 시간과 신경을 쓰며 돈을 받을지, 복잡한 일을 하지 않고 돈을 포기할지둘 중에 한가지를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개강하고 1~2주 간은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수업을 듣는 것 자체가 생소하고, 본교에서 배운 것과 조금 다른 전공 수업을 들으려 하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두 세번 정도 수업에 참여하니 적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개강 전,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는데 이때 처음본 친구들과 시티투어도 하고 퀴즈를 함께 풀어야 하는데 처음 만난 친구들과 스몰톡도 나누고 같이 게임에 참여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이때 알게 된 국제학생들과 교환학생 기간이 끝날 때까지 친하게 지냈습니다. 수업을 듣는 그룹이 다르면 만날 기회가 없을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티는 의미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수님들과 상호작용이 매우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수업시간에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학생들은 틀린 답을 말하는 것에 두려움이 전혀 없어보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저도 함께 동화되어 일원으로서 강의를 듣고,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언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생활하며 발생하는 불편함, 어려움도 당연히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만족도 높은 교환학생 생활을 보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